

메시지 3 – 연구 문제

1.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충만한 기도의 방식으로 읽는 것이 크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메시지 1번에서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3.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내가 …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위대한 계시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놀라운 실재를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4.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또한 이기는 이들은 금등잔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됩니까?
5.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터,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모이는 것의 네 가지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6. 요한 1서 5장 16절에 따를 때 우리는 죄를 짓는 형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에 따른 내재적인 방식으로 돌볼 수 있습니까?
7.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어떻게 교회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보살피시고 신성 안에서 보양하십니까?
8.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비밀한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메시지 3의 연구 문제 1번을 위한 해답 우리가 읽은 그것이 됨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 신성한 계시의 모든 것이 완성된 후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닫지 말고 계속 열어 두라고 명령하셨다. 책을 닫는 것은 책을 제쳐 두는 것이지만, 책을 열어 두는 것은 모든 중요한 구절들을 날마다 읽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바꿔려고 결심하지 말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설명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말씀을 많이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은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여러 번 읽은 후에, 우리는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계시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둠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달라질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신성한 말씀을 단순히 읽을 때, 우리는 생명의 영을 더 받을 것이고 더욱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결심해서는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거나 읽음으로 단지 수긍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수긍하게 하고 확신시킬 필요가 두 주 후에 다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한 계시와 신성한 이상을 보는 것이며, 우리가 계속 보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읽은 그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거듭 읽는 것은 우리를 보양하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옛 존재를 삼킨다.

나의 부담은 이러한 문과 계단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관념을 떨쳐 버려야 하고 둘째로, 결심하는 대신 신성한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여전히 나 자신일 뿐이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여전히 나 자신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그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다면, 빛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는 점차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게 하는, 이른바 '제단으로의 부름'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사역은 언제나 신성한 말씀에 있는 참된 것들에 대한 이상을 성도들에게 밝혀주어,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지고 보게 해왔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계속 만지고 보기를 격려한다.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읽은 그것이 될 것이다.